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 인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라벨(M. Ravel)의

《dulcinée의 돈키호테》

(Don Quichotte à dulcinée)

분석 및 연구

- 피아노 반주의 리듬 해석을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반주학과

조 성 희

라벨(M. Ravel)의  
《dulcinée의 돈키호테》  
(Don Quichotte à dulcinée)

분석 및 연구

- 피아노 반주의 리듬 해석을 중심으로 -

신인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반주학과


조 성 희


# 인 준 서

조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지영주           

심사위원           홍청의           

심사위원           신인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 《둘치네의 돈키호테》(Don quichotte à Dulcinée)의 분석을 반주자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이다. 라벨의 연가곡 《둘치네의 돈키호테》는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문학가였던 폴 모랑(Paul Morand, 1888-1976)이 『돈키호테』(Don Quichotte)를 중심으로 노랫말을 붙여 완성된 작품이다. 처음에 오케스트라 버전이 1933년에 완성되었고, 동년에 피아노 반주버전이 편곡되었다. 본 연구는 피아노 버전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라벨의 이국주의적인 경향, 특히 어머니를 통해 물려받은 스페인음악과 바스크정체성, 스페인리듬을 어떻게 곡에 풀어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라벨의 생애와 작품경향을 3기로 나누어 작곡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 보았다. 그런 분석을 토대로 《둘치네의 돈키호테》 3곡에 사용된 스페인 전통리듬을 찾고, 그 민속리듬들이 각곡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1번곡에는 〈공상적인 노래〉(Chanson romanesque)에는 ‘구아히라’ 리듬이 오스티나토로 사용되었고, 2번곡 〈서사적인 노래〉(Chanson épique)에는 ‘조르지카’ 리듬이 사용되었으며 3번곡 〈술 마시는 노래〉(Chanson à boire)에는 ‘호타 아라고네사’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스페인 민속리듬의 운용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시의 각운 분석을 통해 가사의 행과 연의 구조분석과 시상을 해석한 후 음악적으로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도 확인했다. 시와 음악의 관계 분석과 각 곡에 담긴 스페인 민속음악 리듬 운용에 대한 분석은 피아노 연주자로서 이 작품의 리듬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모리스 라벨의 성악음악 창작 .....	3
1) 라벨의 생애와 성악음악 창작 경향 .....	3
(1) 라벨의 초기 성악작품 .....	4
(2) 1905년 이후의 성악작품 .....	11
(3) 1913년 이후의 성악작품 .....	14
2) 라벨의 성악음악에 담긴 이국주의적 영향 .....	17
2. 《둘치네의 돈키호테》(Don quichotte à Dulcinée) 분석 .....	23
1) 《둘치네의 돈키호테》 창작 배경 .....	23
2) 〈공상적인 노래〉(Chanson romanesque)분석 .....	25
3) 〈서사적인 노래〉(Chanson épique)분석 .....	36
4) 〈술마시는 노래〉(Chanson à boire)분석 .....	44
III. 결론 .....	52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라벨의 초기 성악음악 창작 .....	6
[표 2] 라벨의 1905년 이후의 성악음악 창작 .....	12
[표 3] 라벨의 1913년 이후의 성악음악 창작 .....	16
[표 4] 라벨의 이국주의적 성악음악 .....	18
[표 5] 라벨의 스페인 관련 작품 .....	19
[표 6] 〈공상적인 노래〉 시와 음악 구조 .....	26
[표 7] 구아히라 리듬 .....	27
[표 8] 〈서사적인 노래〉 시와 음악구조 .....	37
[표 9] 조르지카리듬 .....	38
[표 10] 조르지카 변형리듬 .....	38
[표 11] 〈술마시는 노래〉 시와 음악 구조 .....	45
[표 12] 호타 원형 리듬 .....	46
[표 13] 프리지안, G프리지안 선법 .....	48

## 악보목차

〈악보 1〉 〈공상적인 노래〉, 마디 1-9 .....	28
〈악보 2〉 〈공상적인 노래〉, 마디 15-18(간주 1 부분) .....	29
〈악보 3〉 〈공상적인 노래〉, 마디 18-27(2연 시작부분) .....	30
〈악보 4〉 〈공상적인 노래〉, 마디 24-33(간주 2 부분) .....	31
〈악보 5〉 〈공상적인 노래〉, 마디 34-45(3연) .....	32
〈악보 6〉 〈공상적인 노래〉, 마디 42-49(간주 3 부분) .....	33
〈악보 7〉 〈공상적인 노래〉, 마디 46-60(4연 시작부분) .....	34
〈악보 8〉 〈공상적인 노래〉, 마디 58-63(마지막부분) .....	35
〈악보 9〉 〈서사적인 노래〉, 마디 1-9(시작부분) .....	39
〈악보 10〉 〈서사적인 노래〉, 마디 12-14(간주부분) .....	40
〈악보 11〉 〈서사적인 노래〉, 마디 15-19(2연 시작부분) .....	41
〈악보 12〉 〈서사적인 노래〉, 마디 20-23(2연 부분) .....	42
〈악보 13〉 〈서사적인 노래〉, 마디 24-28(마지막부분) .....	43
〈악보 14〉 〈술마시는 노래〉, 마디 1-6 (전주부분) .....	46
〈악보 15〉 〈술마시는 노래〉, 마디 7-14(1연 시작부분) .....	47
〈악보 16〉 〈술마시는 노래〉, 마디 14-25(3연 부분) .....	49
〈악보 17〉 〈술마시는 노래〉, 마디 32-42(후렴 1부분) .....	50
〈악보 18〉 〈술마시는 노래〉, 마디 43-59(후렴 2부분) .....	51
〈악보 19〉 〈술마시는 노래〉, 마디 103-107(후주부분) .....	51

## I. 서론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면서도,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과 같은 다양한 나라의 민족음악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예기치 않게 라벨의 유작이 되어버린 《둘치네의 돈키호테》(Don quichotte à Dulcinée, 1932)는 스페인의 영향이 깊게 들어가 있다. 『돈키호테』(Don Quichotte)의 영화음악에 사용되기 위해 작곡된 이 작품은 폴 모랑이 노랫말을 만들고 라벨이 곡을 붙여 완성하였다. 라벨은 평소에도 다양한 춤곡으로 작품을 썼다. 또한 스페인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스페인 음악과 리듬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런 라벨의 삶이 녹여져 있는 작품이 바로 《둘치네의 돈키호테》이다.

기악음악으로 그 이름이 더 잘 알려진 라벨이지만, 이 작품을 연주자로서 접하게 되었을 때, 라벨의 이국주의 수용을 위해 연구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주관적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곡은 원작 『돈키호테』의 망상에 빠진 우스꽝스럽고 호기심 많은 주인공의 사랑이 어떻게 시로 표현되었고 음악적으로 처리되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는 작품이다. 《둘치네의 돈키호테》에서 스페인 리듬의 수용 확인과 연주 해석을 위한 분석 제안 그리고 시와 음악의 관계를 확인하고 함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라벨의 생애를 성악음악 창작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둘치네의 돈키호테》에서의 스페인 민족음악 수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품 분석 전에 라벨의 성악음악에 수용된 이국주의를 정리하고 어떤 나라의 음악적 특징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품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이 다수 있었다.<sup>1)</sup> 그러나 선행연구물들이 이국주의 수용 관

---

1) 김만수, “Don Quichotte à Dulcinée의 연주해석을 위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점과 스페인 리듬을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물들과 차별화된 본 연구의 목적인 이국주의, 특히 스페인 민속음악 수용과 시와 음악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품 분석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dulcine의 돈키호테》를 분석함에 있어 첫째로 시의 구조와 시상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음악적 구성과 시의 형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로 각 곡에 사용된 스페인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라벨의 독창적인 변형수용을 분석해 확인하고자 한다. 각 곡에 대한 피아노 반주에 대한 연주의 해석을 제안함에 있어 종종 오케스트라 버전에서의 악기 운용도 참고하게 될 것이다.

---

윤경주, “M. Ravel의 Don Quichotte à Dulcinée 반주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은지, “Maurice Ravel의 가곡 Don Quichotte à Dulcinée 분석 및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II. 본론

### 1. 모리스 라벨의 성악음악 창작

#### 1) 라벨의 생애와 성악음악 창작 경향

라벨은 1875년 3월 7일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마을인 시부르(Ciboure)에서 태어났다. 스위스 출신 아버지 피에르 조세프 라벨(Pierre Joseph Ravel, 1832-1908)은 증기자동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이면서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바스크지역<sup>2)</sup> 출신이었던 어머니 마리 들루아르(Marie Delouart, 1840-1917)는 라벨에게 많은 음악적 영향을 주었다. 라벨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일자리를 따라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버지 피에르는 라벨의 음악성을 발견했고, 라벨이 7살 되던 해에 앙리 귀(Henri Ghys, 1839-1908)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였다. 라벨이 12살 때에는 샤를 르네(Charles René, 1863-1940)에게 화성학, 대위법 그리고 작곡을 배웠다.

라벨은 14살이던 1889년에 파리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에 피아노 예과반으로 입학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라벨의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의 기교와 해석에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sup>3)</sup> 음악원에 입학한 후 라벨은 에밀 페사르(Emile Pessard, 1843-1917)에게 화성학을 배웠고 앙드레 제달주(André Gédalge,

---

2) 바스크지역은 피레네 산맥 서부에 있는 곳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있다. 주변의 게르만족, 라틴족과는 민족이 다르고 바스크어라는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며 민족주의 기질이 매우 강한 곳이다. 스페인 안에서는 지금도 독립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스페인과 분리되길 원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https://en.wikipedia.org/wiki/Basques> [2021.9.11.]

3) Arbie Orenstein, *Ravel : man and musician*, 1975. 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서울: 음악춘추사, 2000), 29.

1856-1926)에게 대위법을 배웠다.

이렇게 음악 공부를 시작하고 작곡가로서 20세기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라벨의 창작 경향을 본 장에서는 성악음악을 중심에 두어 기술하고자 한다. 라벨의 창작 시기 구분에 대한 내용은 이내선의 “모리스 라벨”<sup>4)</sup> 외에도 Barbara Kelly(그로브사전(*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sup>5)</sup>도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악음악뿐 아니라, 라벨의 삶과 창작세계를 방대한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성악음악에 초점을 둔 라벨의 창작세계 기술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내선의 시기 구분을 참조한다. 이내선은 명확하게 창작시기 구분을 몇 년에서 몇 년으로 경계 짓지 않고, 초기작품, 1905년 이후 작품 그리고 1913년 이후 작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글을 읽어 보면 초기작품의 시간적 범위는 1882-1903, 1905-1912 그리고 1913-1937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라벨의 초기 성악작품(1893-1903)

라벨은 파리음악원 재학 중이던 1893년에 두 명의 작곡가를 만났고 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두 명의 작곡가는 에마뉘엘 샤브리에(Emmanuel Chabrier, 1841-1894)와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이다. 라벨은 당시 몽마르트에서 보헤미안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던 사티에 큰 영향을 받았다.<sup>6)</sup> 라벨은 샤브리에의 영향으로 피아노곡 《그로테스크한 세레나데》(*Sérénade grotesque*, 1893)를 작곡했고, 사티의 영향으로 마레(Ronald de Marès, 1874-1955)의 시에 곡을 붙인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곡 《죽은 사랑스런 여왕의 발라드》(*Ballade de la reine morte d'aimer*, 1893)를 썼다.<sup>7)</sup>

4) 이내선, “모리스 라벨”, 이석원·오희숙 책임편집, 『20세기 작곡가 연구 1』 (서울: 음악세계, 2010), 336-354.

5) Barbara Lucy Kelly, “Ravel, Maurice,”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20; 878.

6)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32.

7) 이내선, “모리스 라벨”, 337.

파리음악원에서 라벨이 만난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은 피아노 교수였던 샤를 드 베리오(Charles de Bériot, 1833-1914)와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이다. 베리오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라벨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었다. 또한, 포레에게서 작곡법을 배우게 되면서 라벨은 인상주의적인 작곡가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sup>8)</sup> 베리오와 포레는 라벨이 훌륭한 작곡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라벨은 음악수업과 병행하여 작곡가로서의 행보도 시작했다. 1893년 처음 작곡한 《그로테스크한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하여 초기의 마지막 1903년까지 작곡한 그의 성악작품은 아래의 [표 1]로 정리된다.

연도	제목	작가	연주형태
1893	죽은 사랑스런 여왕의 발라드 (Ballade de la reine morte d'aimer)	Roland de Mares	성악과 피아노
1895	어둡고 거대한 잠 (Un Grand Sommeil Noir)	Paul Marie Verlaine	성악과 피아노
1896	성녀(Sainte)	Stéphane Mallarmé	성악과 피아노
1898	물레의 노래(Chanson du rouet)	Leconte de Lisle	성악과 피아노
1898	서글퐁이여!(Si Mornel!)	Emile Verhaeren	성악과 피아노
1896~9 9	마로의 두편의 경구 (Deux épigrammes de Clément Marot)	Clément Marot	성악과 피아노

8)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26-36.

	1. 나를 눈속에 던진 안느 (D'Anne qui me jecta de la neige) 2. 에스피네프를 연주하는 안느(D'Anne jouat de l'espINETTE)		
1901	미라(Myrrha)	Fernand Beissier	칸타타/ 피아노- 후에 관현악
1902	알씨온(Alcyone)	Eugène & Edouard Adénis	칸타타/ 피아노- 후에 관현악
1903	알리샤(Alyssa)	Marguerite Coiffier	칸타타/ 피아노- 후에 관현악
1903	꽃외투(Manteau de fleurs)	Paul Gravollet	피아노- 후에 관현악
1903	세헤라자데(Shéhérazade) 1.아시아(Asie) 2.마술피리(La flûte enchantée) 3.무정한 사람(L'Indifférent)	Tristan Klingsor	피아노- 후에 관현악

[표 1] 라벨의 초기 성악음악 창작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초기에 라벨은 11개의 성악작품을 창작했다. 그중 가곡은 8개이고 3개는 칸타타이다. 1901년을 시작으로 매년 1곡씩 작곡한 《미라》(Myrrha), 《알씨온》(Alcyone) 그리고 《알리샤》(Alyssa)는 모두 로마대상<sup>9)</sup> 본선에 출품된 곡들이다. 이 세 곡은 모두 세속적 칸타

9) 로마대상은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는 콩쿨로써, 건축학, 미술, 조각, 음악학도에게 장학금 및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1663년 루이 14세 때 시작되어 1968년 끝이 났다.

타로 피아노로 먼저 작곡된 후에 관현악으로 편곡되었다.<sup>10)</sup> 로마대상에 출품되는 작품은 모두 관현악으로 출품되어야 했다.<sup>11)</sup> 세 개의 칸타타가 세속적 칸타타라는 것은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라》는 페르낭 베시에(Fernand Beissier, 1858-1936)가 쓴 텍스트에 곡을 붙였다. 베시에가 원작으로 한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의 희곡 『사르다나팔루스』(Sardanapalus)는 고대 앗시리아의 왕 사르다나팔루스와 그리스 출신의 노예 미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알씨온》은 외젠과 에두아르 아데니스(Eugène & Edouard Adénis, ?-?)의 텍스트<sup>12)</sup>로 작곡한 곡이다. 《알리샤》는 아일랜드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마르그리트 쿠아피에(Marguerite Coiffier, ?-?)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8개의 가곡 중 《알리샤》와 같은 해에 작곡된 《꽃외투》와 《세헤라자데》 또한 피아노 반주로 먼저 작곡되었고, 후에 관현악 반주로 편곡되었다. 《꽃외투》는 1906년에 오케스트라로 편곡되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sup>13)</sup> 두 개의 반주 버전을 갖고 있는 《세헤라자데》는 아파슈의 멤버였던 클랭조르(Tristan Klinsor, 1874-1966)가 『아라비안나이트』에 매료되어 쓴 시들을 모임에서 낭송하는 것을 들은 라벨이 그중 3개를 선택하여 작곡한 곡이다. 클랭조르의 『세헤라자데』는 1903년 Mercure de France에서 출판되었다.

칸타타와 두 개의 가곡의 악기 운용과는 달리 성악과 피아노 반주라는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연결되는 라벨의 초기 6곡 가곡의 가사를 그는 다양한

[https://en.wikipedia.org/wiki/Prix\\_de\\_Rome](https://en.wikipedia.org/wiki/Prix_de_Rome) [2021.9.13.]

10)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205.

11) 주희 측이 정한 텍스트로 참가자들이 곡을 붙이는 방식인 로마대상 경연 방법을 『라벨의 삶과 음악』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본선 진출자들은 1달 동안 콩피예뉴 팔레스(Compiègne Palace)의 작업실에 격리되어 솔로 성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작업을 했다.”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56.

12) 로마 시대 시인이었던 오비드(Publius Ovidius Naso, B.C.43-A.D.17)의 시 『메타모르프즈』(Metamorphoses)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다.

13) [https://imslp.org/wiki/Manteau\\_de\\_fleurs\\_\(Ravel%2C\\_Maurice\)](https://imslp.org/wiki/Manteau_de_fleurs_(Ravel%2C_Maurice)) [2021.10.4.]

시대와 다양한 창작 경향의 작품을 선택했다. 표 1을 보면 라벨은 자신의 가곡 창작의 텍스트로 상징주의 시인들의 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베를렌(Paul Marie Verlaine, 1844-1896)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어둡고 거대한 잠》(Un Grand Sommeil noir)을 썼다. 《어둡고 거대한 잠》은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이라 할 수 있는 베를렌의 『지혜』(Sagesse)에서 발췌한 작품이다. 1896년에 라벨은 또 다른 대표적인 상징주의 시인인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1842-1898)의 시 『케루빴의 날개 위에서 연주하는 성 세실리아』(Sainte Cécile jouant sur l'aile d'un chérubin)에 곡을 붙여 《성녀》(Sainte)를 작곡했다. 이 곡은 제목에서 연상되는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느린 멜로디로 시작하여 마치 묵상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반해 반주부는 불협화음을 낸다.<sup>14)</sup> 《서글픔이여!》(Si Morne!)는 벨기에의 상징주의 시인 에밀 베르아에령(Emile Verhaeren, 1855-1916)의 시집 『산사태』(Les Dé-Bâcles, 1888)에 있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마로(Clément Marot, 1496-1544)의 시에 곡을 붙인 《에스피넷트를 연주하는 안느》(D'Anne jouant de l'epinette)를 작곡했다. 이후 1899년 두 번째 곡까지 써서 《마로의 두편의 경구》(Deux Epigrammes de Clément Marot)를 완성한다.<sup>15)</sup> 마로는 16세기의 프랑스의 시인으로 프랑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나를 눈속에 던지는 안느》(D'Anne qui me jecta de la neige)는 1899년에 완성한 1번곡이다.<sup>16)</sup>

《물레의 노래》(Chanson du rouet)는 르콩뜨 드 릴(Leconte de Lisle, 1818-1894)의 『스코틀랜드의 노래』(Chansons écossaises, 1852)라는 6개의 시집에서 발췌한 것이다.<sup>17)</sup>

파리음악원에 함께 입학한 동기이자 평생의 친구 리카르도 비네스(Ricardo

14)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93.

15) 이내선, “모리스 라벨”, 337-338.

16)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200-201.

17)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96.

Viñes, 1875-1943)를 만난 것은 라벨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인연이었다. 스페인 출신인 리카르도와 라벨은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었다. 라벨은 출중한 피아노 실력을 지닌 리카르도를 보며 앞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야 할지, 작곡가의 길을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 비네스와 협업하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하바네라’》를 1895년 11월에 완성되었다. 하바네라<sup>18)</sup> 또한 스페인풍의 춤곡이다. 지금은 《스페인 랩소디》의 3악장으로 유명한 곡이다.<sup>19)</sup> 라벨은 파리음악원에 재학 중일 때에도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 산티아고 리에라(Santiago Riéra, 1867-1959)에게 2년 정도 사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었다. 그에게서도 다양한 스페인 음악을 배우며 이국적인 작품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sup>20)</sup>

1889년에는 특기할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파리 만국박람회<sup>21)</sup>이다. 산업, 건축과 같은 다양한 신기술들이 한 자리에서 전시가 되었다. 문화예술 공연도 다양하게 열렸는데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연팀이 초대되어 공연을 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통음악인 가믈란 《Gamelan》<sup>22)</sup>공연이 있었는데, 라벨뿐만 아니라 드뷔시(Claude Debussy,

18) 스페인식민지였던 쿠바에서 유래했다. 쿠바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스페인계 후손들이 발전시킨 농촌 음악 구아히라(Guajira)가 유행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고유 음악과 흑인노예의 음악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이다. 하바네라라는 이름은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Habana)에서 온 것이다.

19)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33.

20)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31.

21) 1889년 만국 박람회(프랑스어: Exposition universelle de 1889)는 1889년 5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이다. 1855년부터 1937년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8차례의 세계 박람회 중에서는 4번째에 해당된다. 이 박람회는 32,000,000명 이상에 달하는 관람객을 모았으며 프랑스와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지는 에펠탑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Exposition\\_Universelle\\_\(1889\)](https://en.wikipedia.org/wiki/Exposition_Universelle_(1889)) [2021.9.11.]

22) 가믈란(인도네시아어: Gamelan)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기악 합주곡으로, 자바 섬, 순다 열도, 발리 섬 등에 존재하는 음악 합주 형태 또는 그 악기들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발리, 자바 섬에서 쓰는 것으로, 첼금, 실로폰, 북, 징 등의 다양한 악기를 포함한다. 단소, 활 모양의 현악기들 역시 사용되며, 때로는 가수도 참여한다. “가믈란”이란 단어는 ‘망치로 내려친다’란 의미의 자바 어 “가믈”, 그리고 집합명사를 의미하는 접미사 “안”을 붙여서 만든 단어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Gamelan> [2021.9.11.]

1862-1918)도 이 공연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후기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라벨이 이와 같이 1889년 파리음악원에 입학하며 이후로 보낸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여러 교류를 통해 그의 이국주의적인 재능, 특히나 스페인음악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갈 수 있었다. 라벨은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파슈(Apaches)이다. 1900년경 지어진 이 단체는 예술에만 열성적으로 전념하는 단체로 비네스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불량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그림에 대해 논하고 시낭송회를 가지며 새로운 음악을 연주했다. 라벨은 아파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 모임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많은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시인, 화가, 지휘자, 피아니스트, 작곡가, 음악평론가, 스페인의 수학자와 비행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모임을 구성했다. 라벨은 《물의 회룡》, 《슬픈 새》, 《소나티네》 등을 아파슈에서 직접 초연했다. 아파슈 회원인 레옹 폴 파르그(Léon-Paul Fargue, 1876-1947)의 시 《꿈》과 클랭조르의 시 《세헤라라데》에 곡을 붙이기도 했다.

라벨의 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화성학과 피아노 모두 콩쿨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낙제하게 되는 교칙에 따라 수업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1903년에는 완전히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림에도 포레는 자신의 작곡법 수업에 라벨이 청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905년 마지막 로마대상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부터 탈락하게 되면서 소위 ‘라벨사건’이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본선진출자 중 6명 모두가 당시 심사위원인 샤를 르느비(Charles Lenepveu, 1840-1910)의 제자인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당시 음악원의 학장 테오도르 뒤부아(Théodore Dubois, 1837-1924)가 사임하고 포레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라벨은 비록 로마대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작품들로 인해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있었다. 라벨이 파리음악원에서 14년을 보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학풍, 푸가와 칸타타, 전통화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학계와의 충돌을 큰 이유로 뽑을 수 있다. 라벨사건 이후 라벨은 자신의 독립적인 작풍을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포레는 라벨에게 피아노콩쿠르와 로마대상의 심사위원 자리를 맡기며 그를 뒷받침해 주었다.

## (2) 1905년 이후의 성악작품 창작(1905-1912)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라벨은 10곡의 성악작품을 완성했다. 1907년 라벨은 《스페인의 한때》, 《스페인 광시곡》을 완성시켰고, 사람들은 라벨의 ‘스페인의 해’로 부른다.<sup>23)</sup> 라벨은 노앵(Franc Nohain, 1872-1934)의 희극이 갖고 있는 위트와 유머가 자신의 기질과 적절하게 어울린다고 판단해 오페라작품으로 써냈다. 《스페인의 한때》는 1막의 풍자적 코믹 오페라인데 라벨이 스페인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잘 연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sup>24)</sup>

1906년에 작곡된 《박물지》는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쥘 레나르(Jules Renard, 1864-1910)의 다섯 동물을 그린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라벨의 피아노 초연 후에 낭송하는 것 같은 기법으로 불려진 가사 때문에 엄청난 혹평과 ‘가장 라벨답다’는 호평을 동시에 받았다.<sup>25)</sup>

《다섯 편의 그리스 민속선율》(Cinq Mélodies populaires grecques)은 1904-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그리스의 치오(Chio)섬에서 불리던 민속 선율 위에 자신의 독창적 화성을 그려냈다. 칼보코레시(Michel-Dimitri Calvocoressi, 1877-1944)의 요청에 의해 피아노 반주로 가곡을 작곡했다. 다섯 개의 곡은 모두 후에 관현악으로 편곡되었으며 1909년 여섯 번째 곡

23)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73.

24) 이내선, “모리스 라벨”, 344-345.

25)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77.

《트리파토스》(Tripatos)가 추가되었다. 《장난감의 크리스마스》(Noël des jouets)는 1905년 라벨 자신이 직접 쓴 가사에 선율을 붙인 곡으로, 라벨은 이 곡에 대해 ‘소박한 장난감 같은 작품’이라고 직접 밝혔다. 《하바네라식 성악연습곡》(Vocalise-Etude en forme de Habanera)은 1907년 완성 후 1909년 초연된 작품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하바네라 리듬을 사용하며 반주 위에 가사가 없는 목소리를 위한 연습곡이다. 《바다 저편에서 불어온 폭풍》(Les Grands Vents venus d’outremer)은 성악과 피아노곡으로 상징주의 시인인 앙리 드 레니에(Henri de Régnier, 1864-1936)의 시집 『꿈과 같은』(Tel qu’en songe, 1892)에 실린 시이다. 《풀밭 위에서》(Sur l’herbe)는 라벨이 베를렌의 시에 곡을 붙인 마지막 작품이다.<sup>26)</sup> 1910년 《대중의 노래》(Chants Populaires)는 총 일곱 편으로 작곡되었는데, 처음 네 곡(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만이 출판되었고 네 번째 곡 《이스라엘》(Chanson hébraïque)은 관현악으로도 편곡되었다.

연도	제목	작가	연주형태
1905	Noël des jouets (장난감의 크리스마스)	Maurice Ravel	관현악/ 피아노 반주
1905	Chanson de la mariée (신부의 새아침)	Greek Traditional	관현악 반주
1904~6	Cinq mélodies populaires grecques (다섯개의 그리스 민요) 1.Chanson de la mariée (새 신부의 아침) 2.Là-bas, vers l’églises (저 멀리 보이는 교회) 3.Quel galant m’est comparable (어느 사나이가) 4.Chanson des cueilleuses	Greek Traditional	피아노반주/ 관현악반주

26) 이내선, “모리스 라벨”, 343.

	de lentisques (유향을 모으는 여인의 노래) 5.Tout gai!(한없이 즐거워)		
1906	Histoires Naturelles(박물지) 1.Le paon(공작) 2.Le Grillon(귀뚜라미) 3.Le cygne(백조) 4.Le Martin-Pêcheur(물총새) 5.La Pintade(꿩)	Jules Renard	피아노반주
1907	Les Grands Vents venus d'outremer (바다 저편에서 불어온 폭풍)	Henri de Reigner	피아노반주
1907	Sur l'herbe(풀 위에서)	Paul Marie Verlaine	피아노반주
1907	Vocalise-Etude en forme de Habanera (하바네라 형식의 보칼리제)	Spanish Traditional	피아노반주
1909	Tripatos(트리파토즈)	Greek Traditional	피아노반주
1907~9	L'Heure espagnole (스페인의 한 때)	Franc Nohain	오페라
1910	Chants populaires (대중의 노래) 1.Chanson espagnole (스페인의 노래) 2.Chanson française (프랑스의 노래) 3.Chanson italienne (이탈리아의 노래) 4.Chanson hébraïque (이스라엘의 노래)	Spanish/ French/ Italian/ Hebrew Traditional	피아노반주

[표 2] 라벨의 1905년 이후의 성악음악 창작

### (3) 1913년 이후의 성악작품 창작

라벨은 1896년 《성녀》 후에, 말라르메의 시에 깊이 매료 되어 《말라르메의 세 편의 시(1913)》를 작곡하였다. 라벨은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말라르메의 시에 곡을 붙이길 원했다. 현악4중주와, 피콜로, 플루트, 클라리넷, 베이스클라리넷과 같은 목관악기들과 피아노의 편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스트라빈스키와 쇤베르크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더욱 기묘한 선율을 그려낸 작품이다. 1914년에는 《두 개의 헤브라이 노래》(Deux Mélodies hébraïques)를 작곡한다. 피아노 반주버전이 먼저 나왔고 후에 관현악으로 편곡되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라벨은 35살의 늦은 나이에 자원입대하였다. 트릭운전병으로써,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전쟁 시기에 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이 작곡을 통해 조국의 영광을 되살려내려 하였다. 라벨도 그 대열에 동참하여 《세 개의 샹송》(Trois chansons pour chœurs mixtes sans accompagnement)을 써서 프랑스에 대한 사랑을 담아냈다. 이 작품은 반주가 없는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샹송의 느낌을 주며 라벨이 직접 가사를 붙였다. 2번곡 《세 마리의 아름다운 극락조》에서 나오는 낙원의 세 마리의 새 빛깔은 프랑스 국기의 3색을 뜻하며 후렴은 전쟁의 반복을 상징한다.

1917년 갑작스레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음악인으로써의 라벨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크나큰 비극이었다. 3년간은 어떤 작품도 쓰지 못했고 이후에는 1933년까지 1년에 작품 한 개를 겨우 완성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컸다.

1924년 롱사르(Pierre de Ronsard, 1524-1585)탄생 400주년을 경축하는 《영혼의 롱사르》를 작곡하여 소프라노 제라르(Marcelle Gerar, 1891-1970)에게 헌정하였다. 이 시는 롱사르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곡을 끝으로 더 이

상 르네상스 시에 곡을 붙이지 않았다. 1920년에 시작하여 1925년에 완성한 《어린이와 마술》(L'Enfant et les sortilèges)은 라벨의 오페라 작품이다. 작가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뜨(Sidonie-Gabrielle Collette, 1873-1954)이다. 이전에 썼던 《스페인의 한때》와 같은 전통적 오페라의 방식을 피하고,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환상을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라벨은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재즈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에 1925-26년에 걸쳐 완성한 《마다가스카르섬의 토인의 노래》(Chanson madécasses)는 라벨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벨은 마다가스카르섬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파르니(Évariste de Parry, 1753-1814)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매우 이국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해냈고 많은 호평을 받았다. 1927년에는 《꿈》(Rêves)을 작곡한다. 파르그의 시집 『음악을 위하여』(Pour la musique, 1898)에 실렸던 시인데, 라벨은 최소한의 음표만을 사용하여 시에 담긴 서정성을 강조하였다.

이 당시 장 루이(Jean-Louis, ?-?)공작의 집에서 열리는 연회에서 예술에 대한 토론을 즐겼다. 여기서 폴 모랑(Paul Morand, 1888-1976)을 만나게 된다.<sup>27)</sup> 폴 모랑은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 외젠 모랑(Eugène Morand?-?)은 극작가이자 화가였다. 모랑의 형은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이자 프랑스 국립장식미술학교(École des Arts Décoratifs)의 디렉터였다. 모랑의 집은 예술가 집안이었고 쥘 마스네(Jules Massenet, 1842-1912)나 로댕(Auguste Rodin, 1840-1917) 외에도 수많은 음악가, 미술가, 예술가 등이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런 배경을 지니고 자란 모랑은 예술적 감성이 충만하였지만 정작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파리 정치대학(The Paris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을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Oxford University)까지 진학한다. 이후로 전 세계를 돌며 외교관

---

27)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24.

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썼는데, 특히 중편 소설 작품을 많이 집필하였다.

1924년 5월 라벨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로 공연 여행을 떠났다. 라벨이 스페인으로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sup>28)</sup> 나이가 49세가 되어서 처음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다. 그동안 스페인을 가지 않았음에도 그의 작품에 스페인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페인을 정신적 고향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1932년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마친 이후에 바스크 지방에서 장기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유작이 될 《Don quichotte à Dulcinée》를 작곡하였다. 그해 10월,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면부상과 가슴타박상을 입었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1933년에는 글쓰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1937년까지 어떤 작품도 쓰지 못하다가 저명한 의사 클로비스 뱅상(Clovis Vincent, 1879-1947)의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불명에 빠져 1937년 12월 28일 삶을 마감했다.<sup>29)</sup>

연도	제목	작가	연주형태
1913	말라르메의 3개의 시 (Trois Poèmes de Stéphane Mallarmé) 1. 한숨(Soupir) 2. 허무한 소망(Placet futile) 3. 여린 유리 그릇 (Surgi de la croupe et du bond)	Stéphane Mallarmé	실내악/ 피아노반주
1914~5	3개의 샹송(Trois Chansons) 1. 니콜레뜨(Nicolette) 2. 세 마리의 아름다운 극락조 (Trois Beaux Oisaeux du Paradis) 3. 룽드(Ronde)	Maurice Ravel	합창곡/ 무반주

28)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24.

29)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50.

1914~5	두 개의 헤브라이 노래 (Deux Mélodies hébraïque) 1.카디쉬(Kaddish) 2.영원한 수수께끼 (L'Enigme iternelle)	Hebrew Traditional	관현악/ 피아노반주
1923~4	영혼의 롱사르 (Ronsard à son âme)	Pierre de Ronsard	피아노반주
1920~5	어린이 마술 (L'Enfant et les sortilèges)	Sidonie- Gabrielle Colette	오페라
1925~6	마다가스카르섬의 토인의 노래 (Chansons madécassese) 1.나한도브(Nahandove) 2.우아!(Aoua!) 3.휴식(Il est doux...)	Évariste de Parny	실내악/ 피아노반주
1927	꿈(Rêves)	Léon-Paul Fargue	피아노반주
1932~3	dul치네를 향한 돈키호테 (Don Quichotte à Dulcinée) 1.공상적 노래 (Chanson romanesque) 2.서사적 노래(Chanson épique) 3.축배의 노래(Chanson à boire)	Paul Morand	관현악/ 피아노반주

[표 3] 라벨의 1913년 이후의 성악음악 창작

## 2) 라벨 성악음악에 담긴 이국주의적 영향

이국주의(Exoticism)는 유럽 예술의 경향이다. 이국주의의 영단어 'exotic'은 그리스어 'exo'를 어원으로 한다. 뜻은 바깥으로부터이다. 이국주의가 음악에 수용된 역사는 일찍 시작되었지만, 20세기 들어 프랑스의 작곡가들이

많이 시도하였다. 드뷔시도 이국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썼는데,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세계의 음악들을 접하며 당시 들었던 가블란을 자신의 작품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유럽에는 ‘스페인 열병’이 유행했다.<sup>30)</sup> 유럽과 같은 그레코로만 문화를 공유하며 로마와 게르만족의 지배에 있었지만 800년 넘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 독특한 오리엔탈문화와 북아프리카문화, 그리고 짐시문화가 융합된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슬람을 몰아내고 지역주의적인 특색이 강하여 그 문화 또한 독특하였다. 그런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음악에 수많은 예술가들은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드뷔시의 《관현악을 위한 영상 중 2번곡인 이베리아》(Images pour Orchestre, 2.Iberia)도 있다. 랄로(Édouard Lalo, 1823-1892)의 《스페인 교향곡》(Symphonie Espagnole)도 스페인과 관련된 곡들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작곡가들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작품들을 써 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라벨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더해 이국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라벨은 스페인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의 음악을 수용하였다. 그가 작곡한 성악음악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확인된다. 다음 [표 4]는 라벨이 써낸 이국주의적인 성악곡의 목록이다.

연도	제목	배경국가
1903	《세헤라자데》(Shéhérazade)	페르시아
1904~6	《다섯개의 그리스 민요》 (Cinq mélodies populaires grecques)	그리스
1907	《하바네라 형식의 보칼리제》 (Vocalise-Etude en forme de Habanera)	스페인

30) 김창민, 『스페인 문화 순례-세비아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3.

1909	《트리파토즈》 (Tripatos)	그리스
1907~9	《스페인의 한 때》 (L'Heure espagnole)	스페인
1910	《대중의 노래》 (Chants populaires)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1914~5	《두 개의 헤브라이 노래》 (Deux Mélodies hébraïque)	이스라엘
1925~6	《마다가스카르섬의 토인의 노래》 (Chansons madécassese)	마다가스 카르
1932~3	《dul치네의 돈키호테》 (Don Quichotte à Dulcinée)	스페인

[표 4] 라벨의 이국주의적 성악음악

라벨은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이국주의적 작품을 썼다. 라벨은 스페인 출신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받은 영향, 가장 친한 친구 스페인 피아니스트 비네스의 영향으로 스페인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썼다. 다음 [표 5]에서는 스페인과 관련된 기악작품과 성악작품을 나열한다.

연도	제목
1895-1897	피아노곡 《귀로 듣는 풍경 중 1번곡》 (Les Sites auriculaires) 〈하바네라〉 (Habanera)
1899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1905	피아노 모음곡 《거울 중 4곡》 (Miroirs) 〈광대의 기상나팔〉 (Alborada del gracioso)

1907	성악곡 《하바네라식 성악연습곡》 (Vocalise-étude en forme de habanera)
1907-1908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 (Rapsodie espagnole)
1907-1909	오페라 《스페인의 한 때》 (L'heure espagnole)
1910	성악곡 《대중의 노래 중 1번곡》 (Chants populaires) 〈스페인의 노래〉 (Chanson espagnole)
1928	발레 음악 《볼레로》 (Boléro)
1929-1931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G장조》 (Concerto pour piano et orchestre)
1932~3	성악곡 《둘치네의 돈키호테》 (Don Quichotte à Dulcinée)

[표 5] 라벨의 스페인 관련 작품

처음 쓴 작품은 1897년 완성한 《귀로 듣는 풍경》 (Les Sites auriculaires)의 1번곡 《하바네라》 (Habanera)이다. 스페인의 식민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유래한 춤곡으로 《구아히라》에서 나온 춤곡으로 알려져 있다. 라벨은 《하바네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중 앞꾸밈음을 포함하고 있는 화음과 오스티나토 지속음을 지닌 이 작품은, 나의 후기 작품을 지배하게 될 몇몇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sup>31)</sup> 이를 통해 라벨은 《하바네라》를 쓰면서 스페인적인 리듬과 화성, 그리고 이국적인 느낌들을 앞으로의 작품에 그려내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99년 완성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에 대해 라벨은 직접 “죽은 공주를 불러내는 초혼(evocation)의식이며 스페인의 궁정 뜰에서 춤을

31)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91.

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곡에는 라벨의 스페인 문화와 감성에 대한 열정적인 향수가 담겨 있다.<sup>32)</sup> 《거울》(Miroirs) 중 제 4곡인 《광대의 기상나팔》(Alborada del gracioso)은 피아노곡 모음집의 수록 곡으로 1905년의 작품이다. "Alborada"는 불어로 "Aubade"라고도 하는, 여명이 떠오르는 새벽녘, 아침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바네라》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를 제목으로 붙인 곡이기도 하다. 《하바네라식 성악연습곡》은 파리 국립음악원의 음성학 교수였던 에티슈(A. L. Hettich ?-?)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성악연습곡이다. 라벨은 자신에게 익숙한 하바네라 리듬과 선율을 가지고 성악연습곡을 썼다. 《스페인광시곡》(Rapsodie espagnole)은 샤브리에의 《에스파냐》(España)에서 스페인적인 느낌을 가져오고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의 《스페인 기상곡》(Capriccio espagnol)에서 관현악적 기교를 가져온 곡이다. 《스페인의 한때》는 라벨이 최초로 작곡한 오페라이다. 오페라의 배경은 ‘스페인의 한 시계 수리공의 가게’이다. 기계 공학자였던 아버지 조셉 라벨을 생각하며 이 오페라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의 한때》는 유쾌한 희곡작품으로 그의 모음곡 《박물지》와 유사한 성악작곡법과 위트로 구성되었다. 또한 《스페인광시곡》에서 느낄 수 있는 정열적인 스페인의 기상을 오케스트라 반주로 표현해냈다. 1907년에만 스페인 관련된 작품이 《하바네라식 성악연습곡》, 《스페인광시곡》, 《스페인의 한때》와 같이 3개나 될 정도로 1907년은 라벨의 ‘스페인의 해’로 불릴 만 하다. 1910년에는 《대중의 노래》를 썼다. 그중에 1번곡이 《스페인의 노래》이다. 이 곡은 6/8박자로 3박으로 진행되는 춤곡으로써, 스페인 특유의 색채가 충만한 작품이다. 1928년 라벨은 발레를 위한 관현악곡으로 《볼레로》를 썼다. 볼레로는 스페인 춤곡 리듬이다. 라벨은 《볼레로》의 스페인적인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 색소폰 3대를 악기

---

32) [https://en.wikipedia.org/wiki/Pavane\\_pour\\_une\\_infante\\_d%C3%A9funte](https://en.wikipedia.org/wiki/Pavane_pour_une_infante_d%C3%A9funte). [2021.11.1.].

편성에 추가하였다. 스네어 드럼이 볼레로리듬을 치며 시작을 하면 플룻, 클라리넷, 바순, 클라리넷, 오보에, 뮤트한 트럼펫에 이어 색소폰까지 멜로디를 반복한다. 현악기들은 피치카토로 목관악기들을 보조한다. 라벨은 《볼레로》라는 작품에 대해 직접 ‘매우 특별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실험’이라고 자평하였다.<sup>33)</sup> 《볼레로》는 춤곡을 선호하고, 스페인을 사랑한 라벨의 성공적인 실험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완성한 《피아노 협주곡 G장조》(Concerto pour piano et orchestre)에는 어머니의 민족 바스크의 느낌과 스페인의 음악, 그리고 미국 작곡가 거윈(George Gershwin, 1898-1937)의 재즈 느낌도 들어있다. 이 곡은 스페인음악 뿐만 아니라 재즈도 자유자재로 활용한 라벨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이렇듯 라벨의 작품 중에 스페인과 관련된 작품을 연구해본 결과 라벨의 음악관에 스페인의 영향이 크게 끼쳤음을 잘 알 수 있다.

---

33)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266.

## 2. 《둘치네의 돈키호테》 분석

### 1) 《둘치네의 돈키호테》 배경 연구

《둘치네의 돈키호테》는 라벨의 유작이 되어버린 작품이다. 당시 유명한 영화감독이었던 게오르크 파브스트(Georg Wilhelm Pabst, 1885-1967)는 돈키호테를 영화화하기로 했다. 파브스트는 샬리아핀(Feodor Ivanovich Chaliapin, 1873-1938)<sup>34)</sup>이 출연하기로 한 돈키호테 영화의 음악을 라벨에게 맡겼다. 파브스트는 돈키호테 영화를 세 가지 다른 언어 버전(프랑스어, 영어, 독일어)으로 제작할 예정이었고 세 개의 버전 모두 샬리아핀이 주연을 맡기로 했었다.<sup>35)</sup> 라벨은 장 루이 공작의 집에서 친분을 쌓게 된 폴 모랑과 합작하기로 했다. 폴 모랑이 노랫말을 쓰고, 라벨이 곡을 붙이는 것이다. 라벨은 스페인 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이전부터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의 소설 『돈키호테』를 오페라로 옮기려 했다. 라벨과 모랑은 작업에 들어가며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둘의 능력에 부합하는 곡과 노랫말을 쓰는 것, 두 번째는 영화의 후원자들을 때료시켜 영화음악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sup>36)</sup> 그러나 라벨이 택시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실어증이 생겼다. 질병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늦어지게 되자 영화음악 작업의 일은 라벨의 후배였던 자꾸이 이베르(Jacques Ibert, 1890-1962)에게 넘어갔다. 결국 실제 영화에는 이베르가 쓴 곡이 사용되었다. 《둘치네의 돈키호테》는 1932-33년에 오케스트라버전이 완성되었고, 1933년에 피아노버전으로 편곡되었다.<sup>37)</sup>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에 아파슈의 멤버이자 후배였던 뤼시앵

34) 샬리아핀은 러시아의 오페라 가수로서 깊고 풍부한 베이스 음역을 가지고 있었다. 메이저 오페라에도 많이 출연했는데, 특히나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로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영화배우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그의 별이 바닥에 박혀있다.

35) [https://en.wikipedia.org/wiki/Feodor\\_Chaliapin](https://en.wikipedia.org/wiki/Feodor_Chaliapin) [2021.11.8.].

36)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144.

가르방(Lucien Garban, 1877-1959)과 마누엘 로장탈(Manuel Rosenthal, 1904-2003)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sup>38)</sup> 라벨은 1934년 스위스의 요양원에서 건강을 조금 회복한 뒤에 마르샤 생게르(Martial Singher, 1904-1990)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둘치네의 돈키호테》 초연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라벨은 2번곡 〈서사적인 노래〉를 생게르에게 헌정하였다. 결국 1934년 12월 1일 파리의 샤텔레 극장(Théâtre du Châtelet)에서 폴 파레(Paul Paray, 1886-1979)가 지휘하는 콜론 오케스트라(Colonne Orchestra)와 생게르의 노래로 초연되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둘치네 공주는 돈키호테 소설의 초반부터 등장한다. 사실 둘치네 공주는 진짜 공주가 아니라, 돈키호테의 망상에 등장하는 여인이다. 기사들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곤 했다. 돈키호테도 기사소설에 심취했던 상황이었다. 돈키호테는 모험 중에 괴물이나 악당을 무찌른 후에 영광을 돌릴 귀부인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모험을 떠나기에 앞서 영광을 돌릴 상대로 둘치네 공주를 선택한 것이다. 소설 속 둘치네가 된 인물은 돈키호테가 사는 근처 마을의 여농부 알돈사 로렌소이다. 돈키호테는 한 때 그녀를 사랑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종자인 산초 판사는 그녀의 용모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고 소설 속에서 말해준다. 돈키호테는 알돈사 로렌소에게 상상 속 귀부인의 칭호를 주기로 했고 그것이 바로 둘치네아 델 토보소이다. 엘 토보소는 그녀의 고향이었고, 둘치네라는 말은 발음할 때 울림이 좋고, 스페인어로 'dulce(둘쎬)'는 달콤한 이라는 뜻이기에 사랑스러운 여인의 이름으로 손색이 없다고 돈키호테는 생각했다.<sup>39)</sup>

37)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336.

38) Arbie Orenstein/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272.

39) Cervantes Saavedra, Miguel de, 안영옥 번역. 『돈키호테 1』. (과주: 열린책들, 2014), 72.

2) 제1곡 〈공상적인 노래〉 (Chanson romanesque)<sup>40</sup> 분석

Si vous me disiez que la <u>terre</u>	만일 당신이 지구가
A tant touener vous <u>offensa</u> ,	너무 많이 돌아서 불쾌하다고 말한다면
Je lui dépecherais <u>Pança</u> :	나는 광사를 급히 보내어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
Vous la verriez fixe et se <u>taire</u> .	침묵하는 지구를 보게 될 것이오.
Si vous me disiez que <u>l'ennui</u>	하늘이 너무 많은 별들이 있어
Vous vient du ciel trop fleuri d' <u>astres</u> ,	권태롭다고 말하면
Déchirant les divins <u>cadastres</u> ,	신의 토지대장을 찢어버리고
Je faucherais d'un coup la <u>nuit</u>	밤을 단번에 쓸어버리겠소.
Si vous me disiez que <u>l'espace</u>	우주가 너무 텅비어
Ainsi vidé ne vous plait <u>point</u> ,	당신이 즐겁지 않다고 하면
Chevalier-dieu, la lance au <u>poing</u> ,	창을 손에 든 신의 기사가 되어
J'étoilerais le vent qui <u>passe</u> .	별들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흩뿌리겠소.
Mais si vous disiez que mon <u>sang</u>	그러나 나의 피가 나의 것이기보다
Est plus à moi qu'à vous, ma <u>Dame</u> ,	당신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여
Je blémirais dessous le <u>blâme</u>	나는 그 비난 때문에 창백해져서
Et je mourrais, vous <u>bénissant</u> .	나는 죽을 것이요, 당신을 축복하며
O <u>Dulcinée</u>	오, 돌치네여

40) Pierre, Bernac, 심선화 번역. 『프랑스 예술가곡의 해석: 가사·덕션·연주를 위한 해설』  
(서울: 청림출판, 2001), 340-342.

《둘치네의 돈키호테》의 제1번곡에서 사용된 시 〈공상적인 노래〉는 4연의 구성에 짧은 후렴구가 붙었다. 각 연은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연부터 4연까지 각운처리는 포옹각운<sup>41)</sup>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1연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연 1행 끝의 terre[te : r]와 1연 4행 끝의 taire[te : r]는 모두 (r)발음으로 각운이 맞게 구성되어 있다. 1연 2행 끝의 offensa[o.fã.sa]와 1연 3행 끝의 Pança는 모두 sa로 끝맺음한다. 1연 abba의 각운처리는 포옹각운이고, 이 각운은 2-4연까지 모두 동일하다.

첫 번째 곡 〈공상적인 노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돈키호테의 허풍을 보여주는 내용의 노랫말을 가지고 있다. 1-3연은 사랑하는 둘치네 공주를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다. 4연은 1-3연까지에서 밝힌 과장된 구애를 둘치네 공주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고 말 것이라고 얘기하며 후렴구에서 둘치네의 이름을 부르며 끝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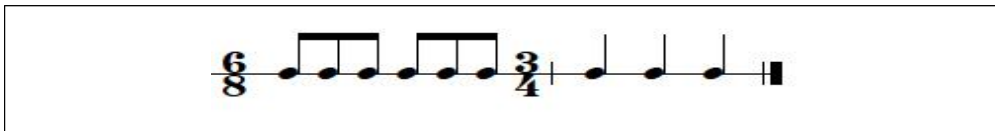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연의 시를 라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곡하였다. 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우선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형식 구분	A					A'				
시의 연	1-2연					3-4연				
세부 단락 구분	전주	a(1연)	간주 1	b(2연)	간주 2	a'(3연)	간주 3	a''(4연)	간주 4	후주
마디	1-4	5-14	15-18	19-27	28-34	39-44	45-46	47-59	59-61	62-67

[표 6] 〈공상적인 노래〉 시와 음악 구조

41) Alain Vaillant, 김다운 이혜지 공역,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東文選). 2000. 99.

이 곡은 총 67마디로 구성되었다. 시의 내용이 사랑을 갈구하는 상승적인 것과는 달리 곡의 빠르기는 일정한 빠르기, 즉 보통빠르기(Moderato)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연주한다. 총 67마디의 제1곡의 형식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크게 두 부분(A+A')로 나눌 수 있다. 네 마디 전주로 시작하여 각 연을 노래한 끝 부분에서는 간주 그리고 후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곡의 전주 부분에서 제시되는 6/8박자와 3/4박자 변박의 두 마디 단위는 이 곡의 전체를 지배한다. 이 두마디 단위 동기(동기 a)는 스페인 특유의 춤곡 리듬인 ‘구아히라’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7과 악보 1, 비교 참조). 이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변박의 두 마디는 돈키호테의 애마 로시난테를 타고 걱정적으로 달리는 그의 모습을 잘 그려낸 리듬이다. 전주에서의 동기 a는 1연과 2연을 노래하는 A부분뿐 아니라, 3연과 4연을 노래하는 A'부분도 관통하며 리듬적 오스티나토로 사랑을 갈구하는 돈키호테의 일편단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기 a가 리듬적 오스티나토로 곡 전체를 관통하지만, 1연이 끝나면서 음의 변화 그리고 음역 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변화된다.



[표 7] 구아히라 리듬

이 곡에서 제시된 ‘구아히라’ 리듬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유래한 리듬이다. 스페인의 음악은 유독 3박자로 구성된 리듬이 많이 있다. 빠른 템포의 곡들은 6/8박자 혹은 9/8박자가 대부분이고 느린 템포의 곡들은 3/4박자를 많이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6/8박자와 3/4박자를 병행으로 사용하여 헤미올라<sup>42)</sup> 현상을 주는 것이 스페인 음악의 큰 특징이다.

42) 헤미올라란, 그리스어 hemiolis에서 유래된 말이다. hemiolis란 하나 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본형 3박을 2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에서 동기 a가 두 번 반복된 후 마디 4에서 못갓춘마디로 성악성부가 동기 a위에서 시작한다. 동기 a 위의 성악선율의 등장은 동기 a의 변형(동기 a')으로 볼 수 있다. 성악부의 선율은 음형 a, 동기 a의 왼손의 4도와 5도 도약 하행은 음형 b로 볼 수 있다. 음형 a는 f음을 지속하다가 e<sup>b</sup> 보조음으로 수식되는 낭송적인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마디 6에서 음형 b의 4도 도약 하행으로 마무리 된다.

〈악보 1〉 〈공상적인 노래〉, 마디 1-9

성악선율의 음형 a는 마디 7-8에서 2개의 보조음으로 수식되며 변화되어 들치네 공주의 마음을 엿보는 듯한 1연의 1행과 2행을 노래한다. 지구를 멈춰주겠다는 다짐을 노래하는 3행과 4행의 음형 b도 음의 높이도 변화하고 성악성부도 음형 a의 낭송적인 분위기를 버리고 선율적 진행을 노래한다.

〈악보 2〉를 보면 15마디부터 18마디까지 1연과 2연을 구분 지어주는 간주 1이 나온다(표 6, 참조). 간주1은 음형 b의 리듬적 특징, 즉 6/8박자의 첫 박이 강조되었던 것을 분산화음으로 변화된 내용을 연주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

해 상대적으로 ‘구아히라’ 리듬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악보 2, 참조). 그러나 전주와 1연의 반주부 음역보다 높은 음역의 운용 그리고 오른손이 당김음으로 불협화음을 연주하므로 1연의 시 내용보다 더한 돈키호테의 허언을 예견하기에 충분하다.



〈악보 2〉 〈공상적인 노래〉, 마디 15-18(간주 1 부분)

[표 6]에서 보듯 2연이 시작되는 b부분(마디19-26)은 낭송적인 음형 a의 변화를 담고 있고 피아노 반주에서도 다시 ‘구아히라’ 리듬이 드러나고 있어 동기 a"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역, 음형 b 그리고 1연의 3-4행을 노래한 선율적 흐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2연을 노래하는 마디 19-26을 a부분의 변형으로 볼 수 없게 한다(악보 3, 참조). 성악선율은  $d^b$ 을 유지하며  $e^b-f-e^b$ 을 보조음형으로 낭송적인 흐름을 수식한다. 2연을 노래하는 성악성부가 a부분보다 6도 높은  $d^b$ 음으로 시작하므로 반주도 높은 음역에서 연주된다. 그렇지만 반주의 리듬패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연주해야한다. 2연은 1연에 비해 피아노 반주부와 성악선율이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는데 2연의 돈키호테의 허풍이 1연의 허풍보다 더 커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15 *mf* Si vous me di.siez que l'en -  
If ev - er for morning you

20 *f* *dim.*  
-nui — Vous vient du ciel trop fleu.ri d'as - tres, Dé - chi.rant les di - vins ca -  
sigh, — The stars I will hide and their won - der, The splendour of heav'n tear a -

24 *p* *mf*  
- das tres, Je fau.che.rais d'un coup la nuit. —  
- sun.der, And ban.ish the night from the sky. —

〈악보 3〉 〈공상적인 노래〉, 마디 18-27(2연 시작부분)

〈악보 4〉에서 2연과 3연을 구분하는 간주는 마디 15-19의 간주 1과 동일하게 시작하지만, 총 8마디로 확장될 뿐 아니라 미세한 변화도 담고 있다. 간주를 연주함에 있어 앞부분에 비해 길어졌지만 ‘구아히라’ 리듬(표 7 참조)의 느낌을 살리고 돈키호테의 허세있는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박자를 유지해야 한다.

〈악보 4〉 〈공상적인 노래〉, 마디 24-33(간주 2 부분)

8마디 길이의 간주2 이후 노래하는 3연은 a부분의 변형으로 시작한다(표 6, 참조). a부분의 음형 a와 같이 낭송조의 동음이 계속 유지되는 시작부분은 3연의 음악적 내용을 a'부분으로 구분하게 한다. 3연의 음악적 내용을 1연을 노래한 것에 대한 변형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마디 36부터 피아노 왼손이 음형 b 재현에서 찾을 수 있다(악보 5, 참조). 35마디부터 시작되는, 즉 a'부분으로 노래하는 3연의 가사 또한 1연과 2연처럼 우주가 비어 돌치네가 즐겁지 않다면 돈키호테 자신이 별들을 흠어 뿌리겠다고 말을 하며 그의 허세 가득 찬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치네가 돈키호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담고 있다. 1-2연이  $b^b$  단조로 노래된 것과는 달리 3연부터는  $B^b$  장조로 바뀌어 3연의 돈키호테의 허세에 가득한 모습을 밝은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조성의 변화를 통한 돈키호테의 허세의 표현은 높은 음역대에서 피아노 반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3연을 시작하는 피아노 반주의 피아노( $p$ ) 다이내믹과 분산화음으로 한 옥타브 반( $c^1-f$ )까지 하행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돈키호테의 조바심을 표현한 듯하다.

34

Si vous me di.siez que l'es - pa - ce Ain.si vi.dé - ne  
If space lost in cha.os was o'er - you, Fill.ing your soul with

38

vous plaît point, Che.va.lier - dieu, la lance au poing, J'é -  
name. less fear, God-like I'd come, shaking my spear, And

42

.toi - le - rais, le vent qui pas - se.  
sow - the stars, ra - diant be - fore you!

〈악보 5〉 〈공상적인 노래〉, 마디 34-45(3연)

3연과 4연을 연결하는 간주 3은 앞의 두 개의 간주와 달리 2마디로 매우 짧다(악보 6, 참조). 4연의 가사는 앞의 1-3연과 달리 돌치네가 자신을 비난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앞에 나온 허풍과는 비교되는 약해진 감정을 보여준다. 1연과 2연에서 나오는 간주와는 다르게 돈키호테가 노래하는 연속성을 반주부가 이어가는 것이다.

<악보 6> <공상적인 노래> , 마디 42-49(간주 3 부분)

4연의 시 내용은 1연-3연과 다르지만, 4연을 노래하는 부분의 음악적인 내용은 1연을 노래한 a부분과 가장 비슷하다. 1-3연 가사의 내용들이 돈키호테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우주와 달과 지구까지도 통제하겠다는 허풍이라면 4연은 돌치네가 자신을 비난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돈키호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애절함과 간절한 감정이 드러난다. 반주의 패턴 또한 동일하게 진행된다. 성악부와 반주부가 중복되는 선율이 있는데 마디 49-51이다. 중복되는 이유는 돈키호테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8

- sant.  
die!

pp

0

pp

f

63

Dul - ci - - né - - e.  
Dul - ci - - e.

\*

<악보 8> <공상적인 노래> , 마디 58-63(마지막부분)

3) 제 2곡 〈서사적인 노래〉 (Chanson épique) 분석<sup>43)</sup>

Bon Saint Michel qui me donnez loisir	인자하신 성 미셸이 내게 나의 여인을 보고
De voir ma Dame et de l'entendre,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셨네.
Bon saint michel qui me daignez choisir	인자하신 성 미셸이 그녀를 기쁘게 하고
Pour lui complaire et la défendre,	지켜줄 수 있게 나를 선택하셨네.
Bon Saint Michel veuillez descendre	인자하신 성 미셸이여.
Avec Saint Georges sur l'autel	내가 성 조르주와 함께 푸른 외투를 입은
De la Madone au bleu mantel.	성모 마리아의 제단 위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D'un rayon du ciel bénissez ma lame	하늘로부터 한 빛줄기가 나와 나의 검을 축복하시네
Et son égale en pureté	그의 동일한 순수함과 경건함
Et son égale en piété	정숙하고 순결함 같이;
Comme en pudeur et chasteté: Ma Dame.	나의 여인이여!
(O grands Saint Georges et Saint Michel)	(오, 위대한 성 조르주와 성 미셸이여)
L'ange qui veille sur ma veille,	나의 밤새움을 함께 지새는 천사여
Ma douce Dame si pareille	나의 감미로운 여인이 푸른 외투를 입은
A vous, Madone au blue mantel!	성모 마리아 당신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Amen.	아멘

43) Pierre, Bernac, 심선화 번역. 『프랑스 예술가곡의 해석: 가사·덕션·연주를 위한 해설』, 340.

《둘치네의 돈키호테》 제 2번곡에서 사용된 시 『서사적인 노래』는 3연으로 구성되어있다. 1연은 7행, 2연은 5행 그리고 3연은 3행으로 비규칙적이다. 또한 1곡의 시에서와 같은 각운처리를 2곡의 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보다는 1연의 1행, 3행 그리고 5행에서 반복되는 '인자하신 성 미셸(Bon Saint Michel)'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인자하신 성 미셸'로 시작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1연은 둘치네 공주를 지키는 자로 자신을 선택하였음에 감사해하며 축복을 구한다. 2연은 기사로 나아가기 위해 검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이다. 3연은 둘치네 공주를 마치 성모마리아와 같다는 찬사로 끝이 난다. 이 곡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성 미셸과 성 조르주는 가톨릭에서 칭하는 성인 조르주<sup>44)</sup>와 대천사 미셸<sup>45)</sup>이다. 성 조르주는 기사도의 수호성인이고 성 미셸은 전투를 하는 천사이다. 돈키호테는 기사로써 조르주와 미셸의 축복기도가 필요했기에 지속적으로 조르주와 미셸에게 기도한다.

곡의 빠르기는 보통빠르기(Molto moderato)로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고 총 28마디이다. A-B-A'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음악과 시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형식 구분	전주	A	간주	B	A'
시의 연		1연		2연	3연
마디	1-2	2-12	12-14	15-22	22-28

[표 8] 〈서사적인 노래〉 시와 음악 구조

44) 성 제오르지오라고도 불리는 성 조르주는 가톨릭의 순교자이다. A. D. 303년 경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로마 황제 근위대의 군인이었으며 리다(Lydd)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중세 이후에는 기사도와 군인들의 수호성인이 되었다. 성인의 문장이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인데, 영국해군이 사용하고, 영국국기(유니언 잭)도안의 일부이기도 하다.  
[https://en.wikipedia.org/wiki/Saint\\_George](https://en.wikipedia.org/wiki/Saint_George) [2021.11.28.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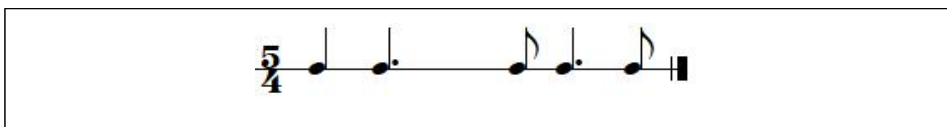
45) 성 미카엘로 알려진 성 미셸은 라파엘, 가브리엘과 함께 3대 천사로 불려지는 천사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거대한 용과 맞서 싸우는 천상 군대의 지휘자로 나온다. 미카엘을 그린 그림들에는 모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archangel\)](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archangel)) [2021.11.28. 접속].

라벨은 3연의 시를 제시, 대조 그리고 반복의 세 부분 형식으로 작곡했다. 한 마디 반의 길이를 가진 전주의 5/4박자의 당김음을 드러내는 리듬은 2번 곡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 리듬은 1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춤곡의 리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스크 지방의 춤곡 '조르지카'(Zortziko)의 리듬이 제 2곡에 사용되었다.



[표 9] 조르지카 리듬

조르지카 리듬은 당김음을 특징으로 한다. 조르지카 원형 리듬은 [표 9]에 있는 5/8박자에 (1+2+2)로 된 리듬이다. [표 10]에 있는 5/4박자 때에는 4분음표와 점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의 조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4박자인 〈서사적인 노래〉에서는 점 4분음표 대신에 붙임줄을 이용하여 리듬을 표현했다.



[표 10] 조르지카 변형 리듬

피아노 전주는 F장조로도 d단조로도 규정하기 힘든 3화음의 6/4화음을 병행으로 사용하였는데, 포부르동(Fauxbourdon)<sup>46)</sup>을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전주는 이 곡을 조성음악으로 보기보다는 선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제

46) 포부르동은 14-15세기 곧, 중세후기부터 르네상스 초기에 교회음악에 사용된 3성부로 이루어진 음형패턴을 말한다. 'Fauxbourdon'은 거짓저음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성부는 상성부와 평행하게 진행하는데 약간 낮게 진행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Fauxbourdon>. [2021.11.21.]

시한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반주를 해야 한다. 라벨은 〈서사적인 노래〉의 전주에 조르지카 리듬 패턴에 하행하는 두개의 긴 음가를 더해 조르지카 리듬을 변형하여 2번곡을 위한 리듬패턴을 형성했다. 이 리듬패턴은 반복해서 보인다.

**CHANT** *Molto moderato* (♩=66) 성 미셸 음형

*p* Bon Saint Mi - chel — qui me donnez loisir —  
Saint Mi - chael, come! — my la - dy bring to me, —

**PIANO** *Molto moderato* (♩=66)

*p*

4

— De voir ma Da - me et de l'en - ten - dre, — Bon Saint Mi - chel — qui me daignez choisir Pour  
— Un - to my soul — her presence lend - ing, — Saint Mi - chael, come! — her champion let me be, With

*cresc.* *b*

7

lui complaire et la défen - dre, — Bon Saint Mi - chel — veuillez descen - dre A -  
knightly grace her fame defend - ing, — Saint Mi - chael, come! — to earth descend - ing, With

*mf* *mf*

<악보 9> 〈서사적인 노래〉, 마디 1-9(시작부분)

성악성부는 마디2, 마디5 그리고 마디 8에서 1연의 1행, 3행 그리고 5행에서 반복되는 ‘인자하신 성 미셸’을 동일하게 상행하는 음형(‘성 미셸 음형’)으로 시작하면서 2행, 4행 그리고 6행을 묶어 하나의 선율로 노래한다. 마디 2-3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 미셸 음형’은 a-b-c-d로 순차상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음형은 3행이 시작되는 마디 5에서는 4도 높은 이도동형진행으로 반복된다. 그리고 5행이 시작되는 마디 8에서도 또 다시 4도 높은 이도동형진행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4도 높은 이도동형진행의 시작음 g음대신에 3도 낮은 e음으로 인해 음역을 점차 높이면서 제단으로 나아가는 미첼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음형의 이도진행을 통한 시적 표현은 다이내믹의 변화(*p*에서 *cresc.* 그리고 *mf*로 점점 커지는)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피아노 반주부의 반복되는 조르지카 리듬 패턴도 성악성부와 함께 다이내믹의 변화를 담아 연주되어야 한다.

1연과 2연을 연결하는 간주는 약 3마디이다. 간주에서도 조르지카 리듬이 사용된다. *p*로 시작하여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반복되는데, 가운데 있는 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왼손 반주부는 대체로 오른손에 비해서 머물러 있는 반면, 오른손 반주부는 순차 상행 후 순차 하행하는 선율적 움직임을 갖고 있으므로 왼손보다 오른손의 선율을 강조해 준다. 간주의 마지막 마디는 왼손 성부의 저음부를 유지한다.



<악보 10> <서사적인 노래> , 마디 12-14(간주부분)

2연은 이곡의 절정부분이다. A부분의 성악성부가 순차적이라면 B부분은 분산화음을 연상시키는 도약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짧은 구간에서 다양한 음역대를 사용한다. 분산화음과 같은 도약으로 2연을 노래하기 시작한 성악성부는 마디 17에서 이 곡에서 가장 높은  $f^1$ 음에 도달한다. 이때의 가사는 '칼날'(lame)'로 칼의 날카로움뿐 아니라 칼에 대한 축복을 간절하게 표현한

하이라이트부분이다. 반주부는 3화음 기본위치를 고수하며 19세기에 양손 모두 높은음자리표로 고음역대를 사용하여 성악부의 내용과 함께 진행한다. '칼날'부분에서 성악부분의 절정을 돕기 위해 점차적으로 크레센도를 가지고 3화음의 풍성함으로 뒷받침해준다.

15 *p cresc.*  
 D'un ray-on du ciel bé-nis-sez ma la-me Et son é-  
 May the light of heav'n on my sword be ly-ing, Give to my

*cresc.*  
 -gale en pu-re-té Et son é-gale en pi-é-té Comme en pu-deur et chas-te-  
 spir-it pur-it-y, And lend my heart sweet pi-e-ty, And lift my soul in ec-sta-

18

<악보 11> <서사적인 노래>, 마디 15-19(2연 시작부분)

이후 성악성부는 피아노 반주의 조르지카 리듬 패턴 위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음형(e<sup>1</sup>-d<sup>1</sup>-c<sup>1</sup>-a)을 바탕으로 2연의 2행부터를 노래한다. 순차하행하는 음형은 마디 18에서 반복된 후 마디 20의 '여인'(Dame)까지 음의 첨가를 통한 변화를 수반하며 반복한다. 이런 반복을 통해 도착한 '여인'부분에서는 헌신과 충성을 담아서 긴 음으로 강조해준다. 반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길이를 가져가주고, 화성의 변화를 통해서 'Da'부분의 강조를 도와주어야 한다. 마디 21에서 끝나는 g음을 단독적으로 유지하여 마디 22의 시작

부분과 연결시켜야 한다. 시에서 괄호 안에 있던 시구 ‘오, 위대한 성 조르주와 성 미셴이여’(O grands Saint Georges et Saint Michel)을 성악성부가 부를 때 반주부는 매우 단조롭게 변화된다. 2연의 피아노 반주부에서 지속되었던 조르지카 리듬이 이 부분과 3연 1행의 전반부까지 없어졌다가 3연 1행의 후반부를 노래하는 마디 24부터 잠시 사라졌던 조르지카 리듬 패턴이 다시 나타난다. 2연의 끝부분의 괄호 안 시구를 부르는 성악성부는 1연의 ‘성 미셴’ 음형으로 시작하므로 음악적 형식을 A에 대한 변화 반복인 A’로 볼 수 있게 한다.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20. The vocal line (bass clef) has lyrics: ".té: Ma Da - - - me, -sy, un - dy - - - ing!". The piano accompaniment (treble and bass clefs) features a circled section of chords. A box labeled "성 미셴 음형" (Saint Michel motif) points to a specific melodic fragment in the vocal line.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22. The vocal line has lyrics: "Geor - ges et Saint Mi - chel) L'an - ge qui veil - le sur ma George and Saint Mi - chael, hear me!) An - an - gel watch - es ev - er".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similar texture.

<악보 12> <서사적인 노래> , 마디 20-23(2연부분)

마디 26부터 조르지카 리듬 대신에 성악부의 가사에 맞추어 반주부의 화성 변화가 나타난다. 마디 26의 ‘Vous[vu]’와 ‘bleu[blø]’의 발음과 연계하여 반주부도 조금 강조하듯이 변화된 화성을 연주해준다. 마지막 ‘Amen’은 돈키호테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연주해야 한다. 반주부도 조심스럽게 *p*로 연주하며 마무리한다.

24  
 veil - le, — Ma dou - - ce Da - - me si pa -  
 near me, — My own be - lov - ed, like, — so

26  
 .reille A Vous, Ma done au bleu man - tell. A - - men.  
 like to you, Ma - don - na, maid di - vine! A - - men.

<악보 13> <서사적인 노래>, 마디 24-28 (마지막 부분)

4) 제 3곡 <술 마시는 노래> (Chanson à boire) 분석<sup>47)</sup>

Foin du bâtard, illustre <u>Dame</u> ,	사생아 따위를 내가 알게 뭐야!
Qui pour me perdre	그 달콤한 두 눈으로 나를 타락시키는
à vos doux <u>yeux</u> ,	저명한 여인이 말하네,
Dit que l'amour et le vin <u>vieux</u>	사랑과 오래된 포도주는 나의 심장,
Mettent en deuil mon coeur, mon <u>âme</u> !	나의 영혼에 깊은 슬픔을 가져온다고!

Je bois à la <u>joie</u> !	나는 즐겁게 술을 마신다.
La joie est le seul <u>but</u>	즐거움은 내가 곧바로 가는
Où je vais <u>droit</u> ...	유일한 목적이다
lorsque j'ai <u>bu</u> !	내가 술을 마셨을 때

Foin du jaloux, brune <u>maîtresse</u> ,	질투쟁이 같으니
Qui geind, qui pleure et fait <u>serment</u>	흐느끼며 울고 맹세하는 갈색머리의 여인
D'être toujours ce pâle <u>amant</u>	언제까지나 취하게 하는
Qui met de l'eau dans son <u>ivresse</u> !	창백한 연인이 되리라.

Je bois à la <u>joie</u> !	나는 즐거우려고 술을 마신다
La joie est le seul <u>but</u>	즐거움은 내가 곧바로 가는
Où je vais <u>droit</u> ...	유일한 목적이다
lorsque j'ai <u>bu</u> !	내가 술을 마셨을 때

---

47) Pierre, Bernac, 심선화 번역. 『프랑스 예술가곡의 해석: 가사·디션·연주를 위한 해설』, 341-342.

〈술 마시는 노래〉의 텍스트로 사용된 시는 4연 구성이고 각 연은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곡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의 각운을 띄고 있다. 1연과 3연이 그리고 2연과 4연이 동일한 각운을 갖고 있다. 그러나 2연과 4연의 동일한 내용은 1연과 3연에 대한 후렴구로 해석하게 한다. 1연과 3연은 포옹각운이고 술만이 시의 화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후렴구 성격을 가진 2연과 4연은 교차각운이다.<sup>48)</sup> 1연 1행 끝의 Dame[dam]와 1연 4행 끝의 âme[a : m]는 m발음으로 동일하다. 1연 2행 끝의 yeux[jø]와 1연 3행 끝의 vieux[[vjø]발음으로 동일하다. 2연 1행 끝의 joie[ʒwa]와 2연 3행 끝의 droit[drwa[a]]는 wa발음으로 동일하며 2연 2행 끝의 but[by]와 2연 4행 끝의 bu[by]도 y발음으로 동일하다.

시의 내용은 돈키호테가 이미 취한 상태에서 돌치네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의 내용 그리고 각운 처리에 맞춰 라벨은 이 시를 1연과 2연 그리고 3연과 4연을 묶어 작곡했다. 형식은 A-B-A'-B'의 단순한 형태이다. 곡의 빠르기는 Allegro(♩=184)로 빠르고 격정적으로 노래해야 한다. 이런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벨이 작곡한 〈술 마시는 노래〉의 구조는 [표 1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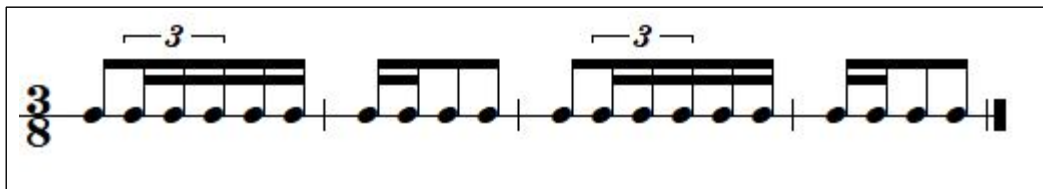
형식 구분	A					A'			
시의 연	1-2연					3-4연			
세부 단락 구분	전주	a (1연)	간주 1	b (2연)	간주2	a'(3연)	간주 3	b'(4연)	후주
마디	1-6	7-30	30-31	32-51	51-58	59-82	82-83	84-103	103-107

[표 11] 〈술 마시는 노래〉 시와 음악 구조

사랑을 이루지 못한 돈키호테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 가사의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이 곡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이 있다. 곡 전체를 아우르는 리듬은 '

48) Alain Vaillant, 김다운 이혜지 공역, 『프랑스 시의 이해』, 98-99.

호타 아라고네사'(Jota Aragonesa)이며 3/4박자에 총 107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호타 아라고네사' 리듬은 종종 '호타'리듬으로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 스페인의 대표적 춤곡인 플라멩고의 부류 중 하나이다. 스페인의 아라곤 지역에서 플라멩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라곤 지역의 호타'라고 하는 '호타 아라고네사'이다. '호타'리듬은 기타와 만돌린, 캐스터네즈, 탬버린 같은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남녀가 격렬하게 추는 춤음악이다. 박자는 3/8박자, 3/4박자를 사용하며 셋잇단음표를 자주 사용한다. 호타의 원형리듬은 아래의 [표 12]이다.



[표 12] 호타 원형 리듬<sup>49)</sup>

라벨은 호타원형리듬을 그대로 〈술 마시는 노래〉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호타원형리듬에는 셋잇단음표가 주되게 나오고 16분음표를 잘게 쪼개서 사용하지만 악보 14에서 볼 수 있듯 〈술 마시는 노래〉에서는 3/8박자가 아닌 3/4박자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반주부의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강세를 주는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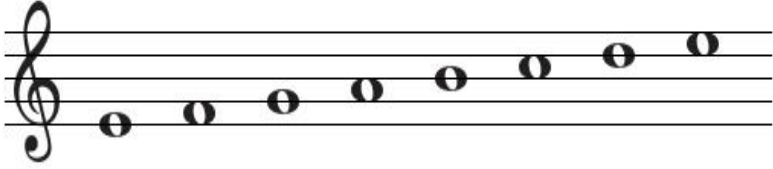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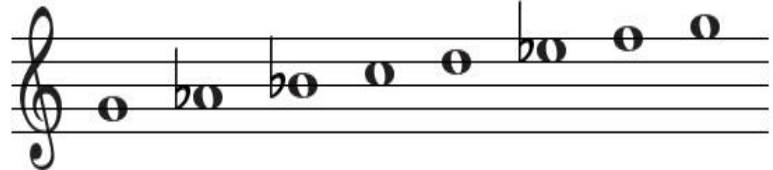
<악보 14> 〈술마시는 노래〉, 마디 1-6 (전주 부분)

49) Linton E. Powell, *A history of spanish piano mus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185.

호타 리듬의 변형을 담고 있는 전주가 끝난 후 시작되는 1연의 1행과 2행을 노래하는 성악성부의 선율을 주제선율 A로 칭한다. 1행 마디 7-8의 음형 a는 이후 3행 시작부분인 마디 15-16에도 나타나지만 조금 변화되어 나타난다. 1행에서 성악부는 g음으로 시작하여 분산화음으로 순차적으로 상승한 후에 높은음 f<sup>1</sup>까지 갔다 다시 순차적으로 하행과 상행을 통해 다시 d<sup>1</sup>음으로 오는 5도 상행선율이다. 1행의 노래가 끝난 d<sup>1</sup>음을 시작음으로 하여 2행의 성악선율이 시작되는데, 1행과 2행이 서로 다른 각운을 가진 것을 구분하기 위해 라벨은 4분침표를 주어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 1행을 노래하는 성악선율이 분산화음 도약진행으로 시작된 것과 달리 2행의 성악선율은 d<sup>1</sup>음으로부터 순차 하행하여 1행의 성악성부 시작음인 g음으로 돌아온다. 반주도 성악부와 같이 g음으로 시작하며 중간 부분에 악센트를 강조하여 연주한다. 전주와 달리 노래가 시작하면서 *mf*로 성악부를 방해 하지 않을 정도로 음량도 조절하여 진행한다.

<악보 15> <술 마시는 노래> , 마디 7-14(1연 시작부분)

전주와 1연의 1-2행의 반주와 성악성부의 주제선율 A를 보더라도 g음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작 부분 외에도 이 곡에서는 전체적으로 g음이 강조되는데, G프리지안 선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g로부터 낭송음인 d에 도달하는 근음인 g로 향하는 형태가 노래성부와 반주패턴에도 보인다.


프리지안 선법

G 프리지안 선법

[표 13] 프리지안, G프리지안 선법

3행을 노래하는 성악성부는 1-2행과 동일한 피아노 반주 위에서 음형 a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작한다. 3-4행의 성악성부는 주제선율 A에 변화를 주며 노래한다. 3-4행 이후에 라벨은 후렴구 역할을 하는 2연과의 연결을 위해 감탄사 '아'(Ah)를 노래하는 부분을 길게(마디 23-30까지) 추가했다. 마치 기악협주곡의 카덴차처럼 화려한 기교를 보이는 감탄사 '아'를 세 번에 걸쳐서 길이를 연장하며 반복한다. 반주부도 두 번의 화성 변화를 강조하며 마치 두 개의 악기가 연주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 이후 2연을 시작하기 전의 g음으로만 옥타브를 바꿔 단음으로 연주한다. 간주 1은 이 곡에서 G 프리지안 선법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 길이를 너무 짧지 않게 무게감 있게 연주할 필요가 있다.

14

yeux Dît que l'a - mour et le vin vieux Met - tent en deuil mon  
 - ine, Say not that love, love and good wine, Brings to us mor - tals

21

coeur, mon â - me! Ah! ah!  
 grief - to - mor - row! Ah! ah!

<악보 16> <술 마시는 노래> , 마디 14-25(3연 부분)

<악보 17> 을 보면 2연과 4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구조와 음악 구조가 동일하다. 2연을 중심으로 하여 시의 후렴구를 살펴보면 ‘Je bois’ 부분은 성악부와 반주부가 함께 같은 진행으로 노래하듯이 연주해야 한다. ‘A la joie!’ 부분은 성악부의 8분음표 리듬이 한 마디 뒤에 반주부로 받아주며 마치 경쾌한 스페인 춤처럼 주거나 받거나 연주해야 한다. 시의 원구성과 달리 라벨은 ‘lors que j’ai’를 2연과 4연에 동일하게 구성했으며 이 부분은 돈키호테가 술을 마시고 딸꾹질을 하는 부분을 반주로 표현했다.

〈악보 17〉 〈술 마시는 노래〉, 마디 32-42(후렴 1부분)

두 번째로 ‘Ah, ah ah la’와 같은 의성어를 넣어서 웃음소리를 가볍게 스타카토처럼 표현해 주어야 한다. 뒤에 나오는 ‘joie!’를 표현할 때도 크레센도로 세기를 끌고 가며 앞선 전타음을 짧게 가져간 후에 나오는 후음을 강조해주며 급격한 상승음을 노래해야 한다. 반주부는 지속되는 단순한 음형을 가져가지만 두 마디씩 레가토로 연주하며 성악부의 다이내믹한 선율을 잘 보조하며 진행한다. 그리고 전주 1-2마디에 있는 부분을 반복해 단락을 나눠주고 전체 휴지 후 새로운 시작부분을 노래한다. 3연의 시작부분은 1연의 진행과 동일하다. 이 곡은 두 개의 연이 반복되는 유절가곡이다.

43 *mf* Ah! ah! ah! la joie! Ah! ah! ah! la joie! La...la...la...  
 Ah! ah! ah! to Joy! Ah! ah! ah! to Joy! La...la...la...  
 48 La...la...la... Je bois A la joie!  
 La...la...la... Drink on, drink to joy!  
 53 Foin du ja -  
 Who wants o

〈악보 18〉 〈술 마시는 노래〉, 마디 43-59(후렴 2부분)

〈악보 19〉에 있는 것처럼 4연의 마지막 부분 마디 103-107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며 끝을 낸다. 마디 103-105까지의 진행은 전주의 마디 1-2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마디 106-107은 급격한 16분음표가 하행하며 끝이 나는데 *ff*의 세기로 반주를 하며 급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타건을 하여 곡을 마쳐야 한다.

103 joie!  
 joy!

〈악보 19〉 〈술 마시는 노래〉, 마디 103-107(후주 부분)

### III. 결론

본 논문은 라벨의 《둘치네의 돈키호테》를 라벨의 스페인 음악 수용과 그에 따른 리듬 해석 그리고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연주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분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로 먼저 라벨의 생애를 찾아보고, 그 시기와 관련되어 라벨이 작곡한 성악작품들을 연구해 보았다. 초기, 1905년 이후의 작품, 그리고 가장 꽃피웠던 1913년 이후의 작품들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초기 라벨은 파리음악원에서 여러 작곡가들을 만나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의 음악관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초기에 그는 상징주의 시에 가곡을 쓰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 1905년 이후로 라벨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성악음악을 창작해가던 시기였다. 1913년 이후 라벨의 성악음악은 이국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작품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라벨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끼친 이국주의적인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준 《스페인의 한때》 같은 스페인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었다. 《다섯개의 그리스 민요》 같은 그리스와 관련된 곡들이 있고, 《대중의 노래》 같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의 다양한 민족음악을 토대로 성악음악을 창작하기도 했다.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라벨의 작품들을 연구하여 유작이 된 《둘치네의 돈키호테》를 피아노 반주 리듬의 해석을 중심으로 성악부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주해야 하는지 연구하였다.

라벨은 《둘치네의 돈키호테》 각 곡마다 독특한 스페인 지역의 춤곡(구아히라, 조르지카, 호타 아라고네사)의 리듬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춤곡의 원형리듬과는 달리 라벨만의 변형리듬을 사용하여 돈키호테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1번곡 〈공상적인 노래〉를 관통하는 ‘구아히라’ 리듬을 구현하기 위해 6/8박자와 3/4박자를 병행으로 사용하였다. 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돈키호테가 둘치네를 위해 강한 허세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4연에서

는 불품없는 돈키호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피아노 반주는 시의 내용과는 다르게 일정한 ‘구아히라’ 리듬을 유지하며 마치 돈키호테가 로시난테를 타고 달리는 것을 연상시키도록 연주해야 한다. 2번곡 〈서사적인 노래〉를 지배하는 리듬은 바스크 지방의 ‘조르지카’ 리듬이다. 라벨만의 ‘조르지카’ 리듬을 구현하기 위해 점4분음표 대신에 붙임줄을 사용하여 리듬을 표현한 것이 독특한 특징이다.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 미셸과 성 조르주에게 축복을 구하는 돈키호테의 간절한 기도이다. 피아노 반주도 그것을 위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포부르동을 연상시키는 병행3화음을 사용하였다. 3번곡 〈술 마시는 노래〉는 아라곤 지역의 전통리듬 ‘호타 아라고네사’가 사용되었다. ‘호타’를 표현하기 위해 3/8박자의 원형리듬이 아닌 3/4박자의 변형리듬을 사용했다. ‘호타’는 격정적인 플라멩고에서 나온 리듬이다. 그리하여 〈술 마시는 노래〉는 매우 열정적으로 연주해야 한다. 피아노반주는 돈키호테가 술 마시고 딸꾹질 하는 부분과 웃음소리를 아르페지오와 분산화음을 가지고 재치 있게 표현해야 한다.

피아노 연주자의 관점에서 연구된 본 논문의 분석내용이 반주자 뿐만 아니라 성악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성악과 피아노의 상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곡으로 연주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둘치네의 돈키호테》를 이해함에 있어서 스페인 음악의 리듬을 깊이 이해하고 연주하는 연구자들과 연주자들에게 본 논문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김창민. 『스페인 문화 순례 - 세비야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이내선. “모리스 라벨”, 이석원·오희숙 책임편집, 『20세기 작곡가 연구 1』. 서울: 음악세계. 2010.
- Powell, E, Linton. *A history of Spanish piano music*.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 2) 번역된 단행본

- Bernac, Pierre.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1970. 심선화 번역. 『프랑스 예술가곡의 해석: 가사·덕션·연주를 위한 해설』. 서울: 청림출판, 2001.
- Cervantes Saavedra, Miguel de ; Dore, Gustave. *(El)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Edicion, introduccion y notas de Martin de Riquer de la real academia Espanola*, 1605. 안영옥 번역. 『돈키호테 1』. 파주: 열린책들, 2014.
- Orenstein, Arbie. *Ravel : man and musician*, 1975. 전혜수 번역. 『라벨의 삶과 음악』. 서울: 음악춘추사, 2000.
- Vaillant, Alain. *poésie : initiation aux méthodes d'analyse des textes poétiques*, 2000. 김다운, 이혜지 공역.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東文選. 2000.

### 3) 사전

Barbara Lucy Kelly. "Ravel, Maurice."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20, edited by Stanley Sadie, 864-878. Second Edition.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Inc., 2001.

### 4) 학위논문

김만수, "Don Quichotte à Dulcinée의 연주해석을 위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윤경주, "M. Ravel의 Don Quichotte à Dulcinée반주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은지. "Maurice Ravel의 가곡 Don Quichotte à Dulcinée 분석 및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5) 인터넷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Basques>. 2021년 9월 11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Exposition\\_Universelle\\_\(1889\)](https://en.wikipedia.org/wiki/Exposition_Universelle_(1889)). 2021년 9월 11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Gamelan>. 2021년 9월 11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Prix\\_de\\_Rome](https://en.wikipedia.org/wiki/Prix_de_Rome) 2021년 9월 13일 접속.

[https://imslp.org/wiki/Manteau\\_de\\_fleurs\\_\(Ravel%2C\\_Maurice\)](https://imslp.org/wiki/Manteau_de_fleurs_(Ravel%2C_Maurice)). 2021년 10월 4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Exoticism>. 2021년 10월 26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Feodor\\_Chaliapin](https://en.wikipedia.org/wiki/Feodor_Chaliapin). 2021년 11월 8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Fauxbourdon>. 2021년 11월 21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Saint\\_George](https://en.wikipedia.org/wiki/Saint_George).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archangel\)](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archangel)). 2021년 11월 28일 접속.

## ABSTRACT

Analysis on M. Ravel's Song

《Don quichotte à dulcinée》

-Rhythm analysis of piano accompaniment-

Jo Sunghee

Department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nalytical study of 《Don quichotte à dulcinée》 by Maurice Ravel (1875-1937). Ravel's mother was Basque in Spain. Ravel's best friend Ricardo Viñes(1875-1943) was also Spanish. So Ravel was very interested in Spanish music and rhythmic dances. In fact, Ravel composed many works related to Spain. Don Quixote is the Spanish novel. Ravel can compose this piece with a Spanish feel to it. Ravel was compose this piece for the film adaptation of the Don Quixote novel. The lyrics were written by Paul Morand(1888-1976) a diplomat and writer who was familiar with Ravel. Ravel's piece for voice and orchestra 《Don quichotte à dulcinée》 was composed in 1932-33 in France. in 1933, ravel

was arranged for voice and piano. *«Don quichotte à dulcinée»* was premiered on December 1, 1934 at the Châtelet Theater in Paris. The Cologne Orchestra, conducted by Paul Paray(1886–1979), performed together. The song was sung by Martial Singher(1904–1990). Unexpectedly, this work became Ravel's last work.

In this study, I divide Ravel's life into three phases to investigate this thesis in detail. I research the vocal works of Ravel together to find out the flow of music trends. Ravel's earliest works were from 1893 to 1903. During this period, Ravel wrote 11 vocal works. There are 8 songs and 3 cantatas for submission. The period from 1905 to 1912 is the middle period of Ravel. During this period, Ravel wrote 10 vocal works. Ravel's later works date from 1913. During this time, he wrote 8 works. Unusually, Ravel wrote a lot of exoticism. 9 vocal works are set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Greece, Spain and Israel. Ravel also wrote 10 works related to Spain. Ravel is a composer who wrote works with his own originality on the basis of neoclassicism.

*«Don quichotte à dulcinée»* consists of three songs. First song is *«Chanson Romanesque»*, second song is *«Chanson Épique»*, third song is *«Chanson à boire»*. *«Chanson Romanesque»* used guahira as the main rhythm, derived from the Spanish colonial Cuban dance habanera. It uses a multimeter in 6/8 time and 3/4 time, and it shows the Spanish rhythm that gives the feeling of hemiola. This work shows Don Quixote's bluffs in delusion. The second *«Chanson Épique»* is a song in 5 beats that uses the rhythm of the Basque dance song Zortzico. mode and Faubourdon are used to express Don Quixote's earnest heart. The third *«Chanson à boire»* is a three-time song using Hota Aragonesa, a dance song from Aragon, Spain. This song shows Don Quixote's drunken mood. As a result this works show Ravel's

ability to fit the Spanish rhythm in the right place. This song needs to be accompanied by a good understanding of the Spanish rhythm. I hope this paper will help you play more perfectly.